



무주군산림조합·무주반딧불신헌, 나눔 실천 ‘훈훈’

무주군산림조합(조합장 박철수)과 무주반딧불신헌(이사장 지대신)이 지난 21일 무주군립요양병원에 성인 기저귀 2,400개, 물티슈 500개 등 250만 원 상당의 비급여 물품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했다.

무주군산림조합과 반딧불신헌 관계자는 “환자용 위생용품이 요양병원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품이지만 비급여라 환자와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셨을 것”이라며 “지원 물품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위생과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천동농협, 결혼이민여성 전통문화 체험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최근, 결혼이민여성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전주 한옥마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결혼이민여성이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전주 한옥마을의 전통 건축미를 감상하고, 한복체험,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한옥마을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배우는 시간도 갖는다.

구천동농협 김성곤 조합장은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 속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지원과 문화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경찰서, 고령자 상대 교통안전 홍보활동

고창경찰서(총경 한도연) 무장파출소(경감 고광남)는 지난 19일 관내 경로당 등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 대상으로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며칠 전 관내에서 발생한 어르신 보행자 사망사고 사례를 설명하면서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리고, 특히 야간보행시 밝은 옷 입기, 전통휠체어 운행 시 주의사항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고광남 무장파출소장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방법 및 전통휠체어 운행,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찾아가는 안전교육

고창경찰서(총경 한도연)는 지난 19일 대한노인회 고창지회에 방문하여 지역 어르신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사례를 들어 교통사고예방수칙 △보행3원칙 ‘서다·보다·걷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에 밝은 옷 입기 등 알기 쉽게 동영상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효자손 파스 등을 배부하고, 5대 반칙운전을 설명하여 기초질서 준수를 해줄 것을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상현실 기반의 이동형 검사시스템을 통해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체험활동을 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 오규환 교수, 학범 박승빈 국어학상 수상

‘한국어 문법론의 점과 선’ 공동 집필… 학문적 우수성 인정받아



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규환 교수는 “국어학의 뿌리를 다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이 이렇게 큰 상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학문적 토대가 되는 기본 개념과 용어를 정밀하게 정리해 후학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을 닦는 데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학범 박승빈 국어학상은 국어학자 박승빈 선생의 뜻을 기려 한국어 연구와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연구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 아중호수도서관 ‘호수 음악여행’ 공연 성황

예술단 ‘바른’ 앙상블 초청

전주시 아중호수도서관은 20일 오후 전북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예술단 ‘바른’ 앙상블을 초청해 ‘호수 음악여행’ 공연을 개최했다.

‘호수 음악여행’은 아중호수도서관이 매월 문학 작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음악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로, 이날 8월 공연에서는 예술단 ‘바른’ 앙상블이 ‘동물의 사육제’를 주제로 AI로 제작한 영상과 함께 다양한 테마를 담은 클래식 연주를 선보였다.

예술단 ‘바른’은 지난 2022년 창단한 지역 청년 예술단체로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아카이빙을 통해 색다른 클래식 감상 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클래식뿐만 아니라 K-pop과 영화음악,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활동하며 차세대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이끌어 가는 중이다.

아중호수도서관은 이날 바른 예술단의 공연에 이어 연말까지 △도아(IDOA) 예술기획 △오지은 △디네테 클래식 앙상블 △김영주재즈 quartet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양질의 공연을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박남미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아중호수도서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 주제 공연·강연을 통해 음악과 책이 조화를 이루는 도서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대 패션산업학과, 패션창업 인재 양성 ‘앞장’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가 글로벌 패션창업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21일 전주대에 따르면 먼저, ‘J Value-up 로컬창업 동아리’에 패션산업학과 6개 로컬창업 동아리가 선정, 1,000만 원의 사업비와 함께 로컬창업 교육, 거점 공간 지원, 팝업 스토어 운영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 동아리는 전주 지역의 전통 헤리티지(Heritage)를 기반으로 한복, 자갑, 의류, 액세서리 등을 아이টে일로 오는 11월 전주 객리단길과 전주대 캠퍼스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현대모터스 리사이클링 제품개발 창업캠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매년 창업 세미나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한 선배 창업가와 직접 협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28일에는 서울에서 창업 선배들이 후배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창업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패션산업학과 2010학번으로 입학한 (주)육육걸즈 박예나 대표는 현장 실습과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하고 있으며, 10월에는 패션창업 토크 콘서트를 열어 후배들에게 창업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한다.



이어 2014년 NC WAVE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시작으로, 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기업과 함께 상품기획, 판매 팝업 스토어 운영에 협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에코 기업인 (주)커넥트와의 그린클로젯 창업 프로젝트 운영, 완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유니폼 제품 개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향상 모색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산하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는 전주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대표 오창환)와 공동 개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전주시 기획예산과와 여성아동과가 함께 한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제안이 어우러진 민관 협력의 자리였다.

전주시 기획예산과와 여성아동과에서 성인지예산의 체계적 운영과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 강화, 공무원 성인지 역

량 강화와 시민사회와 의회의 참여 확대 등을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행정이 마주한 현실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에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장지혜 연구원은 현재 성인지예산이 예산과 평가, 환류를 연계하는 체계와 정책 목표별 맞춤형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은경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눈 의견들이 전주시 성인지예산 운영 발전에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도시 구현과 시민 체감형 제도 구축을 위해 전주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자연드림씨앗재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성공기탁

남원시는 (재)자연드림씨앗재단(이사장 박수진)이 지역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 성공금 1,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성공금은 20명의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 비용 △생활비 △학원비 등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씨앗재단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혁신하는 사람과 일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구의 치유 활성화’, ‘환경과 사람을 위한 생태계 조성’, ‘협동과 나눔의 사회’를 중점 목표로 삼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혁신적 활동들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자연드림씨앗재단에 감사를 전하며, “기탁된 소중한 성공금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자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지면, 고향길 삼계탕 후원받아 이웃 나눔

남원시 금지면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업소 고향길(대표 신숙자)로부터 8월 21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삼계탕을 후원받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향길은 금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허브화 연합모금사업인 착한 가게 7호로 매월 정기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5년 2월부터 격월로 취약계층 및 홀로 사는 어르신 23가구에 삼계탕을 전달해 현재까지 총 92가구에 후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도서관 아카데미 강사 간담회

김제시립도서관은 시민과 학생 모두가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도서관 아카데미 강사 간담회를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하반기 강좌를 맡은 강사진이 참석해 △지난해 운영 성과 공유, △시민 수요와 학생 눈높이를 반영한 강좌 기획 방향, △강좌의 운영 방식 개선, △참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하반기 도서관 아카데미는 어린이 대상의 ‘나는 야! 미래 유튜버’, ‘자신감 뽐낼 어린이 스피치’, ‘창의미술과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인과 어르신을 위한 △브런치 글쓰기, △그림책 심리여행, △시니어 디지털 활용 교육, △시·수필쓰기 등 총 20개 강좌를 준비해 세대별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인권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노인 인권 감수성 향상, △동료 간 존중하는 대화법, △성희롱 예방, △갈등 상황 대처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뤘으며, 참여자들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도태기자